

10대 주력산업의 2013년 전망과 주요 정책 이슈



요 약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업황 양호 업종으로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조선,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 섬유는 업황 개선 업종으로서 지난해 대폭적인 감소율에서 금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동차, 철강, 가전은 업황 부진 업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도 성장세가 1%대로 낮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한·일 간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등은 엔저로 인해 수출이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한·일 간 제품차별화 혹은 경합도 미약), 일반기계(상쇄효과 존재), 조선(수주와 수출 간 시차) 등은 엔저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해외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생산용 중간재를 국내로부터 조달하는 수출유발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조달 비율의 증대 방안 마련과 아울러 해외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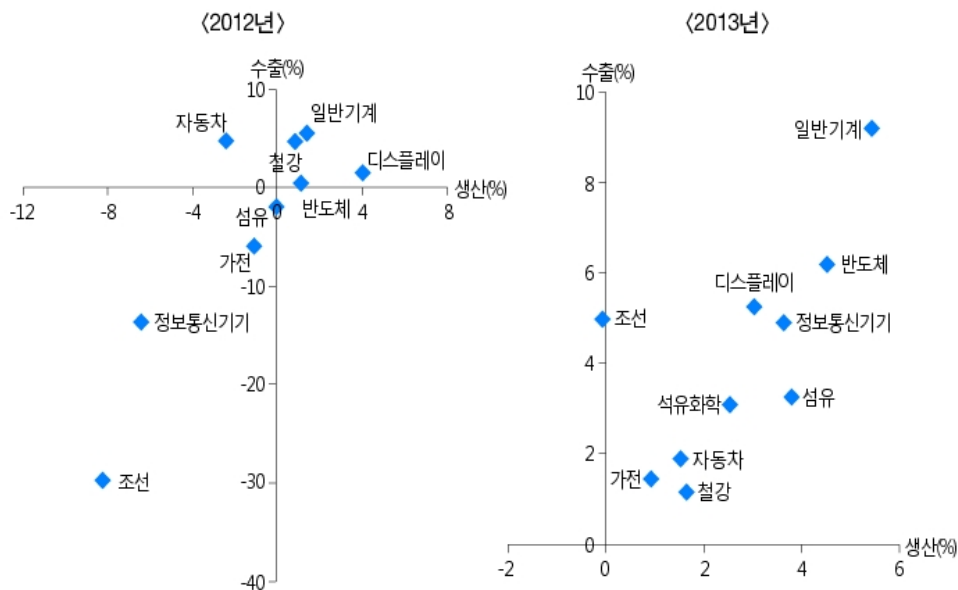
1. 10대 주력산업의 동향과 전망

(1) 개관

지난해에는 수출과 생산 면에서 모두 1% 이상 증가율을 기록한 산업이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3개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조선과 자동차를 제외한 여타 산업의 수출과 생산이 1%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미국 및 중국의 경기 회복과 선진국의 IT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5.3% 내외로 증가하면서 금년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주력산업은 업종별로 성장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업황 양호, 업황 개선, 업황 부진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황 양호 업종은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업종으로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다. 업황 개선 업종은 지난해 대폭적인 감소율에서 금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는 업종으로 조선,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 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황 부진 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성장세가 1%대로 낮거나 감소하는 업종으로 자동차, 철강, 가전이다. 이하에서는 각 업황별로 산업의 작년 동향과 금년 전망,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10대 주력산업의 생산과 수출 증가율 호전 모습



자료 : 산업연구원 전망.

〈표 1〉 10대 주력산업의 2013년 전망

	업종	2013(A)		2012(B)		증감(A-B, %포인트)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생산	수출
업황 양호	일반기계	5.4	9.2	1.3	5.5	4.1	3.7
	반도체	4.5	6.2	1.1	0.5	3.4	5.7
	디스플레이	3.0	5.3	4.0	1.0	-1.0	4.3
업황 개선	조선	-0.1	5.0	-8.2	-29.8	8.1	34.8
	정보통신기기	3.6	4.9	-6.4	-13.6	10.0	18.5
	석유화학	2.5	3.1	1.2	1.1	1.3	2.0
	섬유	3.8	3.3	-0.1	-2.1	3.9	5.4
업황 부진	자동차	1.5	1.9	-1.9	4.9	3.4	-3.0
	철강	1.6	1.2	0.9	4.6	0.7	-3.4
	가전	0.9	1.6	-1.1	-5.9	2.0	7.4

자료 : 산업연구원.

(2) 업황 양호 업종

1) 일반기계

지난해 일반기계 내수는 기계수주 하락세와 설비투자 증가율 정체로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기·전자 및 통신 분야의 수주 하락으로 기계수주는 2012년 1~10월 동안 10.8%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0.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해 수출은 대중수출 감소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ASEAN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5%대 증가율을 시현했다. 이러한 내수 부진과 수출신장세 둔화로 일반기계 생산은 1.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는 수출은 9%대, 생산은 5%대 증가할 전망으로 10대 주력산업 중에서 가장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수출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가시적 효과가 예상되는 중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조치,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및 주택/건설경기 회복, 신흥국의 수입수요 지속 등이다. 중국정부는 총 1조 위안의 투자계획을 승인하였고 춘절 이후 신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Shale gas)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건설기계시장의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다만 경쟁국 일본의 엔저기조 지속 시 일본기계류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경쟁심화가 우려된다.

일반기계의 주요 정책이슈로는 첫째, 수출시장 회복세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

〈표 2〉 일반기계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10억원)	90,561	91,718	96,671	1.3	5.4
수출(백만 달러)	41,732	44,027	48,077	5.5	9.2

자료 : 산업연구원.

로 예상되므로 상반기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투자 조기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계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미들급 사양을 갖춘 전략제품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본 Yamazaki사의 경우 인도에서 Tech. Center와 마케팅 에이전트십 등 Twin Channel Concept¹⁾를 채택하여 공격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굴삭기, NC선반 등 수출 주력제품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설비시스템 수요의 사전적 대응과 신생산장비의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 주요 신성장동력장비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반도체장비의 경우 69%이고 LED장비는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반도체

반도체 글로벌 시장은 지난해 3.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및 스마트 PC의 신제품경쟁으로 시스템반도체가 3.1%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호조였던 반면, 기존 PC의 부진으로 D램 수요는 13.1%나 감소하여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반도체 주력제품인 메모리의 수출 부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를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확대가 상쇄하면서 작년 반도체 수출은 0.5% 증가하여 마이너스 수출을 모면했다.

금년에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D램도 2년 연속 대폭 감소에 따른 업계 구조조정 결과 2% 안팎의 소폭 반등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은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도체산업의 정책이슈는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투자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재료 산업의 상생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

1) 자사 직영점을 통한 판매와 현지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판매의 두 가지 유통채널 방식.

〈표 3〉 반도체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10억원)	61,261	61,940	64,730	1.1	4.5
수출(백만 달러)	50,146	50,420	53,560	0.5	6.2

자료 :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전망.

올리 반도체 해외투자업계와 국내 장비·재료업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오스틴법인에 39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AP(application processor)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시안에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 초부터 낸드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투자는 2012년 170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101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3) 디스플레이

지난해 디스플레이 수출은 수요 회복보다 가동률 조절에 따른 공급 축소, 하반기 패널가격 안정, 일부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여 1%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생산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가격 회복과 세트업계의 특수대비 하반기 재고축적, 모바일기기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약 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패널 가격은 작년 4분기에 북미 및 중국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 수요처인 세계 TV시장이 작년 4분기에 전년동기비 약 3%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중국의 수요 요인(에너지 절감 가전 보조금정책, 춘절 대비) 발생에 따른 중국 TV업체의 패널 재고 축적,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3분기 10.5%, 4분기 16.8%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급여건 개선으로 패널 평균가격은 2011년 2분기 111달러에서 2012년 2분기 102달러로 대폭 하락한 후 4분기에 105달러로 반등했다.

금년에는 패널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반면 수요는 다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수급여건은 작년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급의 경우 고부가가치 패널 비중 증가를 위한 기존 라인의 신공정(광시야각 PLS, 고해상도 LTPS/Oxide) 전환과 대형 라인의 중소형 라인 전환 등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의 모바일용 패널 매출 비중은 지난해 20%에서

〈표 4〉 디스플레이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백만 달러)	36,882	38,356	39,516	4.0	3.0
수출(백만 달러)	30,163	30,463	32,090	1.0	5.3

자료: 산업연구원.

올해 3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가격은 중국 세트업체들의 패널 재고 비축이 마무리되면서 상반기까지 약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에는 상승하는 완만한 ‘상저하고’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는 수요 부진을 타개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한 ‘고해상도’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술적 애로로 양산이 불확실한 AMOLED보다 UD(풀HD의 4배 화소)용 패널의 양산 확대가 예상되며, 스마트폰에서 촉발된 고해상도화가 태블릿PC와 TV로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업계의 생산능력 축소 영향으로 수급이 크게 안정되는 가운데, 수출은 일본 등 경쟁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모바일용 패널 수요확대에 힘입어 5%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중소형 패널 및 중국의 대형 패널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이나,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차별화 전략으로 단기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이슈는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형 OLED 패널의 양산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고, 플렉시블 패널 개발 등을 통해서 차세대 패널시장을 계속 선도하도록 R&D 및 세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주요 디스플레이 부품·재료·장비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업황 개선 업종

1) 조선

2012년 조선 글로벌 시장은 유로지역 회복지연에 따른 세계 성장동력 약화, 해운 시장 개선 미흡, 선박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신규 수요가 위축되고 선박금융이 축소되면서 상선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다.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상선 발주량은 전년동기비 39.0% 감소한 1,880만CGT를 기록했다. 벌크선 운임지수(BDI)도 2011년 말의 1,738에서 2012년 말에는 699로 거의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시

〈표 5〉 조선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만CGT)	1,580	1,450	1,449	-8.2	-0.1
수출(백만 달러)	56,588	39,740	41,727	-29.8	5.0

자료 : 산업연구원 .

주 :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표준화물선 환산톤 수.

추선, FPSO, FSRU²⁾ 등의 해양플랜트는 고유가로 심해 유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11월까지 드릴십 32척에 231억 달러 발주 등 해양플랜트 투자가 414억 달러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양플랜트 및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였으나, 총 수주와 건조량, 수출에서 모두 중국에 추월당했다. 2012년 11월까지의 누적수주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34.6%로 1위이고, 한국이 31.9%, 일본 14.9%를 차지했다. 건조량에서는 같은 기간 한국이 1,310만CGT인 데 비해 중국은 1,750만CGT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한국이 352억 달러로 중국의 368억 달러보다 다소 낮았다.

금융위기 이후 폭락했던 선가로 수주했던 물량이 2012년에 인도되면서 금액기준 29.8%로 대폭 감소했던 수출은 금년에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연기 물량의 인도와 기저효과 등으로 약 4%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경기부양효과 기대와 함께 다수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와 LNG선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이스라엘 Tamar, 미국 South Texas, 모잠비크 FLNG, 호주 Crux 등 10여 개의 심해용 대형 LNG-FPSO 프로젝트의 유력한 수주 기업은 국내 빅 3가 될 전망이다.

조선산업의 주요 정책이슈는 첫째, 환경대응 R&D 강화이다. 금년부터 글로벌 환경규제인 EEDI³⁾ 1단계가 시작되어 2025년까지 계속 강화될 예정이므로, 에너지 효율성에 의한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R&D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형 조선소 지원이다. 상선시장의 침체로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중형급 이하 조선소들이 시황이 양호한 해양지원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중형급 이하 조선소의 수요창출을 위해 선박펀드 건조선박의 국내 건조를 유도하고, 어

2) FPSO는 부유식 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FSRU는 부유식 재기화설비(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3)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제조연비지수.

선의 고연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등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는 작년에 기업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과 수출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1년 24%에서 2012년 3분기 39.4%로 계속 상승하면서 1위를 유지했으나, 같은 기간 해외 생산이 57%에서 81%로 대폭 확대된 결과 생산과 수출은 각각 6.4%와 13.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년에는 세계수요 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시장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및 휴대용 PC 수요 지속 확대, 윈도8 출시 효과, 세계 LTE 서비스 확산, 중국 등 신흥시장 스마트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시장은 2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휴대폰 해외생산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신규 전략 스마트기기 출시 확대,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과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간 신제품 및 특허경쟁이 심화될 것이나 한국기업의 LTE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휴대용 PC의 역량 강화로 수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스마트폰의 평가가 좋은 일본에 대한 수출호조가 기대된다. 대일본 수출액은 2012년 25억 달러로 미국에 이은 제2위 수출대상국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주요 정책이슈로는 첫째, 정보기기에 이어 휴대폰의 해외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 및 수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듯이, 융합 분야의 신기술 선도 개발과 특허 확보 및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강화 및 제품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ZTE가 빅5 구도에 이미 진입했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에서 하웨이, 레노보 등이 저렴한 보급형·고급형 제품 출시를 확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표 6〉 정보통신기기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십억원)	70,145	65,647	67,979	-6.4	3~6
수출(백만 달러)	35,194	30,411	31,888	-13.6	4~8

자료: 생산 KEA, 수출 KITA, 잠정치 및 전망은 KIET.

3)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내수 및 글로벌 침체 지속,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둔화와 수출 단가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2년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1%대로 부진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동향의 유력한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중국의 화학제품 특히 주력 합성수지의 수입량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를 늘리고 있다. 합성수지(PE/PVC, ABS/PS 등)는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중국시장에서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로 합성섬유 중간원료(PX), 합섬원료(PTA/PET) 및 합성고무(BR/SBR)의 수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기존 나프타(석유화학 원료)의 재고가 감소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단가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석유화학 수출은 2~3%대, 생산은 2%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IT기기 등 신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신성장동력 부문의 국내설비 신증설 등이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력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유가 안정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제약,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석유화학의 주요 정책이슈로는 첫째, 고급제품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다운스트림 분야의 고부가가치 특화제품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R&D투자와 사업화 리스크가 크므로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위험 저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국별 투자리스크 경감을 위한 통상외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업계는 대중 수출 우회기지 활용, 현지시장 선점 확대 등의 목적으로 동남아와 중앙아 등에 대한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⁵⁾

〈표 7〉 석유화학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만톤)	2,138	2,164	2,218	1.2	2.5
수출(백만 달러)	45,587	46,067	47,127~47,818	1.1	2.3~3.8

자료: 산업연구원.

4) 장섬유 강화수지,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LCD 도광판, 이차전지 소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등.

5) 카자흐스탄(LG화학), 우즈베키스탄(호남), 말레이시아(호남), 인니(호남), 필리핀(금호, 대림) 등.

4) 섬유

섬유는 내수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알뜰 구매족의 증가와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저가 아이템 공급 확대에 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불황형·절약형 소비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화섬, 면방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의 채산성 악화와 패션 한계기업의 M&A 등을 통한 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경쟁 심화 및 수요 감소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압력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이러한 내수 불황과 수출 감소로 생산은 -0.1% 감소했다.

금년에는 생산과 수출이 3%대 성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수는 SPA 확대, 모바일시장 등 유통 다각화, 기능성섬유 확대 등에 힘입어 3%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차별화 제품(고기능 편직물, 중동용 블랙·화이트 직물 등) 확대 및 대중 수출 회복으로 3%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시진핑 신 지도부가 내수 진작과 빈부·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유통성을 강화함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섬유업계의 수출 확대에 호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업체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동시장용 블랙 및 화이트 직물, 폴리에스터 강연감량직물, ITY니트스판직물 등 주력 수출품목군까지 중국이 수출을 확대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섬유산업의 주요 정책이슈는 첫째, K-POP 주도의 한류열풍에 따른 외국 관광객의 의류쇼핑 매출 증가를 감안하여 체계적인 한류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관광객의 의류 구매에서 차지하는 중국인의 비중이 60.7%이고 일본인은 55.8%에 달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둘째, 제품의 고급화·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 섬유 수출이 봉제의류에서 직물류 수출로 전환하면서 특화 직물 개발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포스트 ITY 싱글 스판 니트직물, 폴리에스터·나일론 박직물 신제품, 폴리에스터 강연감량직물, 화섬의 고기능성·자연섬유화, 화섬 복합 고직물의 차별화 등에 대한 개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섬유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천톤)	2,112	2,109	2,189	-0.1	3.8
수출(백만 달러)	15,932	15,596	16,117	-2.1	3.3

자료: 생산은 통계청, 광공업통계; 수출입은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주: 생산은 섬유사 기준으로 물량, 수출은 섬유 전체 금액기준.

(4)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

1) 자동차

자동차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및 기저효과로 작년 3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수입차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해외시장은 EU 시장의 침체 속에 미국, 러시아 등의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이다. 수출물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수출차량 고급화로 인한 수출가격 상승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완성차 수출단가는 2010년 1만 2,118달러, 2011년 1만 3,596달러, 2012년 1만 3,872달러 상승하였다.

금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볼륨차종 신차효과 소멸 등으로 내수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도 해외수요 부진, 원화환율 하락, 브라질과 중국에서의 해외생산 확대, 국내생산능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1%대의 미미한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현대 중국 제3공장은 작년 7월에 40만대 규모의 생산을 개시했고, 브라질공장도 작년 11월에 15만대 생산을 시작했다.

자동차산업의 주요 정책이슈는 첫째, 국내 생산능력 한계 해소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 기업의 가동률은 100%에 근접한 상황으로 해외수요가 증가해도 수출할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기아광주공장이 증설되었지만, 현대차그룹 전반에 걸쳐 주간 2교대 전환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생산이 감소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신공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모델 다양화가 필요하다. 수입차 증가 요인으로 클린디젤차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의 친환경차 투입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비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친환경차 모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소형차와 대형차급의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 도입, 클린디젤의 다양한 차급 적용 등이 필요하다.

〈표 9〉 자동차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만대)	465	456	463	-1.9	1.5
수출(억 달러)	684	717	731	4.9	1.9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수출은 MPI 741, 742 기준(완성차+부품).

2) 철강

세계 철강수요는 안정세이지만 유럽의 침체, 중국 철강소비의 급격한 둔화, 신흥국 중심의 철강 공급능력 확대에 의해 국제 철강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국내 철강생산은 전년 대비 0.9%로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고 수출은 이보다 다소 나은 4.6% 증가했다. 조선 및 건설의 생산 활동 위축, 자동차 및 기계 등 전방산업의 경기 부진 등으로 철강 내수는 2.4% 감소했다. 국내 공급역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하 부진과 재고부담 우려에 따른 가동률 및 재고 조정 등으로 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업체들은 내수 부진을 보전하기 위해 수출 확대에 주력했다.

금년 세계 철강소비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중국 철강경기가 상반기에 다소 회복되었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유럽·미국의 재정위기, 일본 침체, 중국 성장둔화로 하반기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되어 3.2%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에서도 주요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공공부문 투자 확대 효과도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1%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대내외 수요 미흡으로 철강 생산과 수출은 1% 안팎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산업의 주요 정책이슈는 첫째,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력 강화이다. 세계 철강 생산과 소비의 2/3를 점하는 한·중·일의 공급과잉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건설·기계분야 수요 둔화로 철강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수출확대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내 생산구조 고도화 및 합리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를 중심으로 철강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강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표 10〉 철강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천톤)	72,283	72,910	74,060	0.9	1.6
수출(천톤)	29,091	30,430	30,800	4.6	1.2

자료 : 한국철강협회.

주 : 철강재, 물량 기준.

3) 가전

가전 생산은 수출 회복과 아울러 동절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 10월 이후 소폭의 신장세로 전환되었으나 작년 전체로는 1.1% 감소했다. 수출은 LED 조명기기 등 절전형 제품의 해외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품인 디지털TV의 글로벌 시장 침체로 5.9% 감소했다. 내수는 지난 하반기부터 가전제품 신모델 출시와 마케팅 강화, 난방 가전 및 이사수요에 따른 대형가전 수요 증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디지털TV 및 스마트TV로의 교체수요 증가로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에는 디지털방송 전환 특수가 사라지면서 디지털TV 수요가 대폭 축소되나, 정부의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강화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출시 확대, 유통업체 중심의 저가 가전제품 판매 촉진, 수출 회복 등으로 생산이 다소 호전되어 0.9%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 강세와 해외생산 지속 확대로 수출 여건이 밝은 편은 아니나, 선진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수요 증대와 한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가전산업의 주요 정책이슈는 첫째, 신흥시장 대응력 강화이다. 신흥시장의 성장이 선진권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은 프리미엄 제품 전략으로 인해 저가제품 위주의 신흥시장 대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UD제품 개발력 강화이다. 금년부터 UD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나, 우리는 UDTV 외에 UD 대응제품은 전무한 실정으로 UD 관련제품 즉 UD 비디오 카메라, UD 프로젝터, UD 카메라 등 콘텐츠 제작·편집 관련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선진국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지난 1월 24일 최종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반덤핑관세율은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 전자 13.02%, 삼성전자 9.29%이며, 이로 인해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참고로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규모는 연간 8억~10억 달러이다.

〈표 11〉 가전산업 실적과 전망

	2011	2012(잠정)	2013(전망)	증가율(%)	
				2012	2013
생산(10억원)	40,464	40,020	40,369	-1.1	0.9
수출(백만 달러)	13,328	12,539	12,740	-5.9	1.6

자료: 산업연구원.

2. 주요 이슈 점검

(1) 엔저의 산업별 수출 영향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원/달러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이 0.43%로 외환위기 이전 0.16%보다 약 2.7배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⁶⁾되었으며, 이는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편이다. 이러한 높은 환율 변동성은 특히 중소기업의 환율 대응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환율 변동의 영향은 수출단가보다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수출물량 감소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품은 일본·중국과 경합관계로 수출가격 수시 조정이 어려워 환율변동의 수출가격 전가가 곤란하다. 기업이 채산성 악화를 감내할 수 없을 때 수출물량이 감소한다.

현재의 원/엔 환율이 금융위기 전인 2008년 초에 비해서는 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엔 약세가 국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향후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원/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수출산업구조 및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변화, 한·일 간 제품차별화 진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경향이다. 석유제품, 반도체, 조선 등 환율 민감도가 낮은 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최근 10년간 한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환율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저의 의도가 일본 제조업의 재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 점검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산업별 엔저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간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등에서는 수출이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는 현대·기아의 수출 비중이 75~80%에 달하고 미국 등에서 수출품목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형차에서 일본과 중첩되며, 한·일 모두 미국 비중이 25% 내외로 원/엔 환율 변동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철강은 양국 모두 생산 대비 수출 비율이 30~40%대로 높고, 아시아 의존도가 한국 57%, 일본 69%로 수출시장이 중첩되며, 세계시장에서도 수출품목 중첩으로 수출 경합도가 60으로 높은 수준이다. 섬유에서도 양국 주력 수출시장이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등으로 중첩되고, 주력 수출품목도 화섬사, 화섬직물 등으로 중첩되어 수출 경합도가 높다. 가전 역시 자

6) 한국은행(2010), '환율변동성의 수출에 대한 영향분석', Monthly Bulletin, 2010.10.

〈표 12〉 10대 주력산업 수출에 미치는 엔저 영향

	산업	요인
수출 둔화/ 감소	자동차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 우려
	철강	주요 시장에서 한·일 간 높은 수출 경쟁도
	가전	프리미엄 완제품·부품에서 일본과 경쟁관계
	섬유	화섬사, 화섬직물 등 화섬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한·일 간 높은 수출 경쟁도
영향 미미	정보통신기기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 미미
	디스플레이	일본의 시장점유율 미약, 모바일기기용 소형패널에서 경쟁 확대가 예상되나 수요 증가로 영향 미미
	반도체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로 영향 미미
	석유화학	한·일 간 수출 주력 제품 상이하여 영향 미미. 일본은 고부가 하이엔드 품목 위주인 반면 한국은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
	일반기계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완제품 수출에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NC장치 등)의 수입단가도 인하되므로 상쇄 효과 발휘
	조선	수주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수출까지 2년 정도 소요되므로 2013년 수출에는 영향 미미

자료 : 산업연구원.

국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중첩되고, 특히 국내기업의 현지생산용 부품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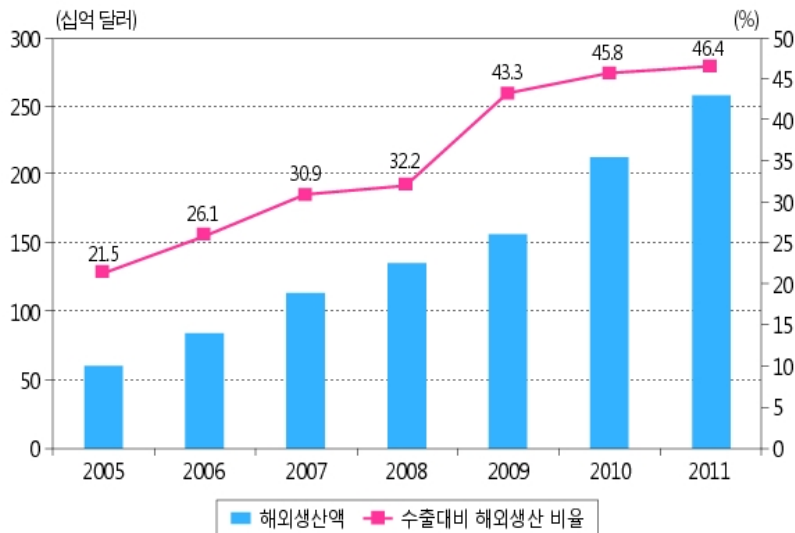
반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한·일 간 제품차별화 혹은 경쟁도 미약), 일반기계(상쇄효과 존재), 조선(수주와 수출 간 시차) 등은 엔저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해외생산의 빠른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 제조업 생산은 2005~2011년 기간에 611억 달러에서 2,579억 달러로 연평균 27.1%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1.8%로 해외생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 결과 수출대비 해외생산 비율이 2005년 21.5%에서 2011년 46.4%로 급상승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14% 감소한 2009년에도 해외생산은 16%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해외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국내로부터 조달하는 수출유발 비율이 2005년 34.2%에서 2011년 23.2%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림 2〉 제조업 현지법인의 생산액과 수출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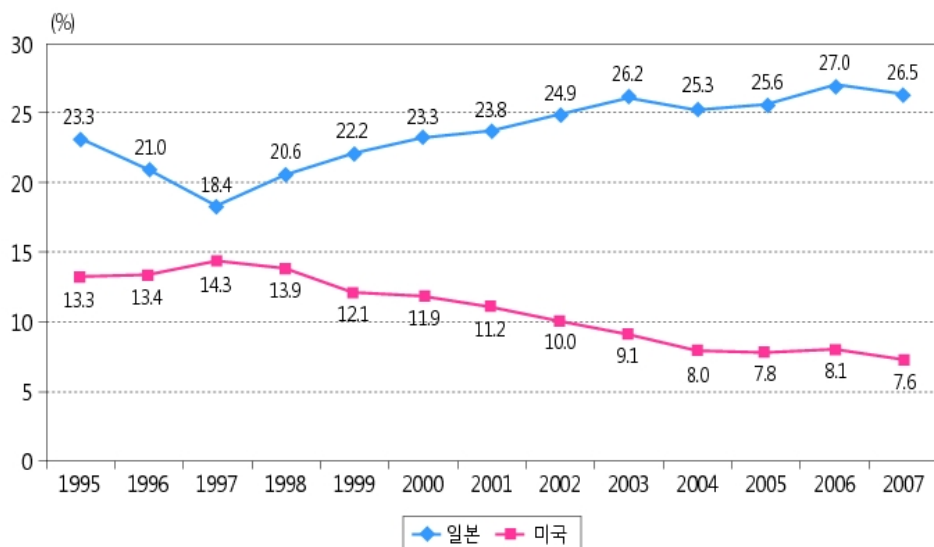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DB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분석결과.

〈표 13〉 해외생산의 수출유발 비율(한국)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34.2	30.7	26.7	22.8	19.7	19.9	23.2

〈그림 3〉 일본과 미국의 수출유발 비율 비교



자료 : OECD.

〈표 14〉 일본 제조업 해외생산의 수출기여율

	2000	2007	증가분
일본의 제조업 수출(십억엔)(A)	49,647	79,033	29,385
제조업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십억엔)(B)	10,589	24,679	14,089
유발수출 비중(%) $(B)/(A)$	21.3	31.2	47.9

자료 : OECD.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해외생산 기업들의 국내 중간재 조달비율이 높아 해외 생산이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생산액 대비 중간재의 국내조달액 비율(=수출유발 비율)은 2000년 23.3%에서 2007년 26.5%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높은 수출유발 비율에 힘입어 일본 수출에서 해외생산 연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3%에서 2007년 31.2%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증가분에 대한 기여율은 무려 47.9%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생산은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조달 비율 증대 방안 마련과 아울러 해외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간재의 국내조달 비율이 높아지면 해외생산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경숙
연구위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ekslee@kiet.re.kr



장윤중
선임연구위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jang@kiet.re.kr